

알렉산더 맥퀸 디자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적 해체주의 특성

권혜숙* · 김윤진

상명대학교 디자인 대학 의상 디자인 전공 교수*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Alexander McQueen's Design

Kwon, Hae-Sook* · Keum, Yun-Jin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 Myung University*
M.A. Graduate, Sang Myung Art & Design Graduate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the fashion of Alexander McQueen.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hree large categories for analysis are indeterminacy, decentralization, and inter-textuality. The indeterminacy of meaning is divided into unstructured and unorganized factors in fashion, while decentraliz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cross-gender, subculture, and post-humanism. Lastly, inter-textuality is classified into factors of mixing mode and mixed styles. Materials for analysis were chosen from a total of 616 designs from the website, www.firstview.com, which carries McQueen's collection from 2000 S/S through 2007 F/W. My analysis qualitatively evaluates the frequency of each categ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First, the avant-garde facets of inter-textuality are most prominent. In particular, McQueen has introduced retro fashion and ethnic factors of the third world, not to copy them but to create hybrid designs by using pastiches and mixing fashion styles. Moreover, he has enjoyed using two fabrics of different texture in order to inflict a shock and contrast, thus enriching his fashion.

Second, the indeterminacy of meaning is the second most frequently shown facet of McQueen's fashion design. McQueen has employed unstructured expression techniques, which dismantle harmony and balance, the basic rule of design, and has presented unorganized images free from basic forms of design. He has made a new attempt to acknowledge clothing as an expressive artwork by allowing clothes to take a complete form when a person actually wears them.

Corresponding author: Kwon, Hae-Sook, Tel.+82-41-550-5201
E-mail: kwon1004f@hanmail.net

Third, the aspects of decentralization were also shown in McQueen's design. His trans-gender clothing dissolves the traditional division of men and women and adopts a mixed gender expression. Furthermore, he has even tried to express a fourth gender by connecting the human with machine or animal or by connecting the material with the non-material.

Key Words : Deconstructionism(해체주의), Inter-textuality(상호 텍스트성), Indeterminacy of meaning(불확정성), Decentralization(탈중심성)

1.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아방가르드한 예술가의 상상력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예술로서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고 이로부터 시대감각에 민감하게 반응되면서 패션 자체의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현대적 의미의 패션이 시작되었다.¹⁾

패션에 있어서 아방가르드는 고전적 복식미에 대한 가치를 파괴하고 기존의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하여 비예술적 표현성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를 혁신하고 재창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미술외적인 양식들은 물론이고 도발, 폐쇄성, 사회적 생존 따위의 전략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²⁾

아방가르드 패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기존의 미적, 도덕적 규범과 장르의 구별을 해체하는 해체주의적 성향이다.³⁾ 해체주의 이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기존의 문학적 비평에서 있을 수 있는 고정된 해석을 깨트리고 텍스트의 의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독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론으로⁴⁾ 80년대 이후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장 유행하는 강력한 포스트 모던 움직임이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기존의 토대와 이성 중심의 서구적 사고로 인한 의미 부재에 대한 해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는데 이들의 이러한 시각 시스템과 철학은 디자인과 패션 등의 분야에도 적용되었다.⁵⁾

해체주의는 기존하던 패션에서의 규칙과 관례를 파괴하는 양상을 초래하여 지퍼와 솔기 등을 밖으로 배치하는 디자인들의 제시 등으로 과거 안으로 숨겨두었던 내부의 구조와 같은 부분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또한 옷이 풀린 스타킹처럼 이전에는 바

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바람직한 양상으로 바뀌었다.⁶⁾ 80년대 이세이 미야케와 콤 데 가르송과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구 패션 디자인의 오랜 역사를 깨고 그들의 해체주의적 창조성으로 패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⁷⁾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가와쿠보와 같은(생략) 아방가르드한 일본 디자이너들이 제시한 형태가 없어 보이는 의복은 서구적 시각으로는 이상하고 보기 흉해 보이는 것이어서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복의 구성과 비율에 대한 서구적 시각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한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단서를 해체주의와 미니멀리즘이라는 문학과 예술 사조로부터 차용하여 온 것이었다.⁸⁾

한 시대의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는 그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대 복식의 미적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상과 인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패션 디자이너는 각 시대의 최첨단에 위치하여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흡수·전달하는 교량자로서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복 스타일을 창조해 왔으며 때로는 그 스타일이 즉각 수용되어 그 시대의 미적 가치의 척도가 되는가 하면, 때로는 거절되었던 혁신적 스타일이 다음 시대에는 새로운 발판으로서의 기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⁹⁾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라 불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장 폴 고티에와 같은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패션계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¹⁰⁾¹¹⁾¹²⁾¹³⁾ 이 중 악동, 천재, 쓰레기, 혁명가, 미친X 등의 극과 극의 수식어들로 평가 받고 있는 영국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결코 길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의 작품들은 여러 악평들을 무색케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때 최고급 패션 하우스인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활동하였고 구찌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기도 한 그의 작품이 주는 영향력은 아방가르드 패션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각 논문에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거나 대부분 해체주의의 어떤 특정한 측면이나 혹은 부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음으로 해체주의의 특성이 어떻게 그의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체주의이론의 개념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패션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이해한 후 이러한 해체주의 개념별 특성이 어떻게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 봄으로써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의 '선두주자'라 불리는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특성을 이해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II.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으로 사용되어져왔다. 미술용어사전에서는 아방가르드는 전위,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운동을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로 규명하고 있다.¹⁴⁾ 그리고 타타르키비츠(Waldslzw Tatkiewicz)는 그의 저서 「예술개념의 역사」에서 반항적인 예술가 무리를 아방가르드라고 이름 짓고 있으며¹⁵⁾ 아드리안 마리노(Adrian Marino)는 공격적인 활동으로 용기와 진취적 정신이 충만되어 선두를 달리는 개척적이며 선행적인 현상을 가리킨다고 했다.¹⁶⁾ 또한 피터 뷔르거(Peter Burger)는 어떤 정신

적 발전 과정에서의 전위,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자를 지칭하고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전위적인 투쟁의 입장을 이념으로 표방하는 진보적 조류를 가리키며 20세기 초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입체파, 미래파 등을 위시하여 더 나아가 누보로망이나 부조리극 등을 가리킨다고 쓰고 있다.¹⁷⁾

따라서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형식과 내용의 끊임 없는 변화를 자극하던 지난 20세기에 아방가르드는 흔히 미술을 포함한 현대문화와 문명발달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중 하나로 단순히 하나의 예술 사조로 보기 보다는 예술적, 미학적, 문화적 실천으로 여겨진다.

본래 아방가르드란 말은 전위부대의 최전열을 지칭하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로 이 단어가 문화적인 용례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25년 유포피아 사회주의자였던 생시몽(Saint Simon)에 의해서였다. 생시몽파의 에밀 바로(Emile Barrault), 푸리에 사상의 후계자인 라베르당(G. D. Laverdant) 그리고 프루동(Proudhon) 등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프루동의 글속에서 이 용어는 사회적 진보, 사회주의적 사상 그리고 예술가와 문필가의 집단행동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⁸⁾ 이후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혁신적인 목표를 지닌 예술조류를 지칭하는 쪽으로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이다.

이처럼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하나의 고정된 말로서 규정할 수 없고 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특히 현대미술과 아방가르드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혼동되어 사용할 만큼 근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아방가르드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술 또는 조형이라는 이름의 규범이 아니라 현재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그 현재적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창조적 의지이다. 이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창조적의지는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기초를 둔 기존가치질서에 대항하는 도전과 부정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아방가르드란 전위부대의 최전열을 지칭하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로 사회적 진보, 사회주의적 사상 그리고 예술가와 문필가의 집단행동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⁹⁾ 이후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혁신적인 목표를 지닌 예

술조류를 지칭하는 쪽으로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이다.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즉, 포스트모더니즘 양상과 더불어 이해될 때 더욱 명확해지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아방가르드의 전통, 보다 정확하게는 네오아방가르드의 맥락으로 설명할 때 확실해진다.²⁰⁾ 모더니즘시대 아방가르드는 제도예술에 반대하기 위해 예술과 생활과의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격효과를 주요기법으로 사용했지만 그 자체가 제도예술로 되어버림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아방가르드의 위치나 개념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편입과정에서 등장한 네오아방가르드는 생활실천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겠다는 모더니즘시대 아방가르드의 의도를 부정하면서 유치하고 통속적인 대중적 소재를 이용하여 제도예술 속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율적 예술을 지향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보급된 네오다다이즘(Neo-dadaism)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네오아방가르드 예술은 1960~70년대에 이르러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술 현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대중문화의 대용물로서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팝아트, 옵아트, 누보리얼리즘, 테크놀러지 아트들이며 나아가 액션 페인팅, 앵포르멜)로 불리는 행위예술 등으로 진행되었다.²¹⁾

네오아방가르드는 자신의 목표가 사회변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중과의 철저한 소외를 위한 것도 아니며, 이미 제도화된 생활예술 속에서 대중문화를 통해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아방가르드가 사용했던 기법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제도화된 새로움을 추구한다.²²⁾ 에반스(Caroline Evans)와 손튼(Minna Thornton)²³⁾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Anti-Fashion) 및 아방가르드 형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고 여성적인 것, 반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보았다. 오늘날 다원주의, 수정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양상들에서 보이는 전통의 부활, 대중문화, 비주류문화의 수용 그리고 그것이 결과하는 절충주의(Eclecticism)

등은 아방가르드 정신과 수법에 의존하면서도 그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모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호로 전환 즉, 패러디(Parody)화한다는 점에서 네오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겠다.²⁴⁾

결국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아방가르드가 주장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라는 문화적 실천을 대변하는 아방가르드가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네오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현대 패션에 적용함에 있어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패션은 ‘아방가르드적 해체주의’란 의미로 해석하기로 하였다.

III.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별 표현 유형과 유형별 특성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패션과 해체주의 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이 분야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²⁶⁾²⁷⁾²⁸⁾²⁹⁾³⁰⁾³¹⁾³²⁾³³⁾³⁴⁾

또한 최근에는 패션에 나타난 전반적인 해체주의적 특성 및 각 양상에 따른 디자인의 특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이루어 졌다.³⁵⁾

선행연구와 문헌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징은 불확정성(현전의 형이상학의 해체), 탈중심성(로고스 중심주의 형이상학 해체), 상호텍스트성(이분법적 형이상학의 해체)로 이러한 개념들이 해체주의 복식의 표현양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해체주의의 개념이 복식에 어떠한 표현 유형과 디자인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불확정성 - 무(無)형식

불확정성이란 의미의 혼동이나 모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란 불확정적이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 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개념이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³⁶⁾³⁷⁾

해체복식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불확정적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므로 불확정성의 개념이 나타난다.³⁸⁾ 즉, 의복은 구성을 통해서 인체와 외부 사이에 그리고 피복과 인체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해체패션은 이러한 의복의 공간 개념을 열린 공간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체를 감싸는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오히려 인체를 드러내거나 구분된 공간으로 전향시키는 구성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⁹⁾

복식에 있어서의 해체주의는 혼합된 무(無)양식의 양식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으로 무형식의 표현기법은 미완성 표현이나 비완성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으며 디자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비구조적인 표현기법과 비구성적인 표현기법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1) 비구조적인 표현기법

이것은 중심의 부재, 공간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분류한 것으로 중심의 부재란, 의복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구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성향은 기존의 의복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의복 구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과도한 비대칭 구조의 사용이나 의복의 무게나 균형을 파괴하는 과도한 디테일이나 장식의 사용 등을 통한 불균형과 부조화의 감각을 지닌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구체적인 표현 기법과 방식의 예를 살펴보면,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여밈 및 네크라인, 스커트 햄라인의 비대칭 또는 부분적 확장, 의복의 부분적 확대나 과장 또는 길이연장, 의복의 전체적 확대 및 축소, 레이스·러플·루프 다발 등의 과잉장식, 이질적 오브제의 확대 및 부착, 2중 또는 3중 허리선 등으로 표현되었다.

(2) 비구성적인 표현기법

이것은 거주할 수 없는 공간, 입을 수 없는 옷도

순수한 옷의 형태라고 함으로써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키고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심지어 안감 또는 다리미 처리도 없이 만드는 비구성적 의복처럼 의복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안의 솔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울이 풀린 햄라인 등 완성되지 않은 의복의 형태, 기존의 다프션이 비상식적인 위치로 이동해 있거나 아예 사라진 의복, 과학적인 패턴 구성을 통하기 보다는 천을 인체에 자유롭게 둘러 만들어 진 듯한 의복 그리고 일정한 틀 속에서 정형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끈이나 확장된 의복의 일부로 착장자가 자유로이 의복의 최종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의복 등으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인 표현기법의 예를 들면 여밈 처리가 없이 평면의 천을 인체에 두르거나 매거나 걸쳐서 착용, 소매가 없거나 소매의 기능을 슬릿으로 대신, 구성선에 관계없이 동글게 도려냄, 의복의 부분삭제, 봉제가 완성되지 않고 조각조각 연결, 기본 구성선의 생략 또는 특이한 구성선 등의 표현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2) 탈중심성

해체주의는 근원, 진리, 이상적 형태, 고정 관념, 신, 현존 등 모든 의미를 항상 주도하고 보장하는 중심의 사고(idea of a center)에 기초한 서구의 사고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 가설, 아이디어, 그리고 사상과 신념 등을 형성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⁴²⁾⁴³⁾ 데리다가 해체하려고 했던 기존의 중심주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그것은 서양중심주의, 말중심주의, 소리중심주의, 남자중심주의, 남근중심주의, 정신주의, 물질주의, 현존중심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⁴⁴⁾

이와 같은 탈 중심성의 개념은 복식에서는 종래의 이성적 기준이 되었던 남성 중심의 성, 백인종 위주의 인종개념,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와의 차별, 인간중심주의 등과 같은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시키기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로 내적으로는 억압되고 소

외되어왔던 것 즉, 여성, 유색인, 제 3세계 문화양식, 초인간주의 등의 비주류문화 혹은 하위문화 등이 국제적 보편주의에서 탈피하여 의상에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체 패션에서의 탈중심성의 개념은 기존의 중심이 되어왔던 성, 인종, 문화, 인간주의 등의 해체로 나타나 성의 교차적 표현, 제 3 세계 복식, 안티 패션 그리고 포스트 휴먼 등의 양식으로 나타났다.⁴⁵⁾

(1) 성의 교차적 표현

사회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법칙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성역할에 따른 의복 패러다임은 현대에 이르러는 폐지되어 성의 복합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성에서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살함으로써 총체적인 중심주의를 해체시키고 있다.⁴⁶⁾⁴⁷⁾⁴⁸⁾ 또한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철학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복식의 상징적 계층성을 해체하여 복식에서의 성적 차별을 해체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개념의 변화는 남성 중심에서 탈피된 성의 교차적 복식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매니쉬 스타일이나 듀얼리즘적 표현, 또는 매니쉬한 표현은 남성 전유물로 여겨지던 바지나 남성복 자켓 스타일을 여성복 스타일에 채용한다거나 남성 정장용 스타일인 맨디룩이나 밀리터리 룩 등을 여성복으로 변환시키는 등의 특성으로 표현되었다. 듀얼리즘적 표현 방식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니어스, 또는 섹스리스의 스타일로 나타나 있었는데, 구체적인 표현 기법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적요소를 철저히 말살하거나, 소년·소녀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는 의복형태, 남성복에서 스커트와 여성적 디자인양식 또는 여성의 속옷이 적용, 여성복에서 남성의 내의를 이브닝드레스로 입거나 남성성기의 과시적 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제 3세계 양식표현

20세기 전반기 서구의 문화는 소외된 것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획일적인 국제적 보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기존의 백인 중심의 보수적 사고

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그리고 휴머니즘의 고양 등으로 유색인종 끌어안기를 통해서 글로벌리즘이란 양식으로 움직여 갔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 에스닉, 원시적, 그리고 자연주의적 표현으로 이끌어졌다.⁴⁹⁾⁵⁰⁾ 아울러 민족지학적, 토착적 지방성으로 제 3세계의 문화나 오지의 원시부족 또는 흑인의 요소들을 혼합한 이국적, 원시적 또는 자연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족적 요소를 반영한 복식의 표현으로 나타난 제 3세계 복식의 양식은 민족적 특유의 요소를 복식에 접목하거나, 이국적 표현, 오리엔탈적 요소의 표출, 또는 원시적이거나 자연적, 토속적 표현 기법이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3) 안티 패션

역사적으로 패션 시스템은 계급제도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의 속성은 중심이 되는 창조적 힘인 파리 패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컨텍스트에서 파리는 스트리트 패션, 하위문화, 그리고 이민자들의 문화와 같은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다 서민적인 패션으로 그 힘을 이양하게 되었다.⁵¹⁾ 하나의 사회적 저항의 이탈과 불만의 표출로 등장한 하위문화 스타일은 기존의 패션 중심 세력이 기득권에서 소수자에게로의 이양이라는 탈중심화로 볼 수 있다.

하위문화 패션은 자발성과 상상력에 의한 무한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패션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⁵²⁾ 이러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많이 보여지는 트임주기와 구멍내기, 비우기, 잘라내기 등의 방법이나 옷감을 불규칙으로 아무렇게 주름을 고정시킴으로써 구김의 효과를 낸다거나 혹은 옷감의 손상하기, 흠내기, 찢기 등은 기존의 패션을 평가하는 심미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추의 미(美)’ 혹은 안티 패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의 미는 기존의 스타일을 비속하게 모방하는 열등한 예술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키치와 더불어 지금까지 아름다움 추구라는 미의식에서 탈중심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³⁾⁵⁴⁾

이처럼 안티 패션은 아름다움이 강조된 기존의 패션 개념과 가치관을 깨는 거칠고 허름하며 낡고 지

저분하기까지 한 그리고 때론 공포스럽거나 추하다고 평가되었던 디자인의 요소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장신구를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색채나 문양의 과도한 사용, 신체의 과도하거나 비상식적 노출이나 인체부분의 강조, 자극적 소재나 선정적 장식, 모조품·기성품·낡은 골동품·폐품의 비예술적이고 일상적 소재 사용하는 키치적 표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4) 포스트 휴머니즘(탈인간주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주요한 유럽 대륙의 철학으로, 이것은 르네상스 인본주의 시대의 이미지들과 아이디어를 넘어서 테크노 과학적 지식의 21세기 개념에 보다 가깝게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⁵⁵⁾

해체패션에 있어서 기존 인간중심의 패션에서 해체된 이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적 표현은 우주시대가 개막되었던 1960대에 소개되어 최근에도 미래의 테크놀러지를 현재에 차용하여 표현되고 있고 나아가 사이보그 즉, 제4의 성에 대해서까지 언급되고 있다.⁵⁶⁾

이러한 성향은 인간을 인간 형태 자체로 표현하기 보다는 사이보그나 동·식물, 혹은 그 밖의 다른 유기체의 이미지나 형태 등으로 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간 위주의 기존 사고 개념의 해체로 나타난 탈인간주의적인 복식의 표현양식은 스페이스 룩이나 테크놀러지 등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지향하는 미래적 이미지를 지닌 디자인상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의 혼합 등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초인간 표현 방식을 창조하는 기법 등으로 나타났다.

3) 상호 텍스트성 -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를 인용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텍스트에 의해 형성시키는 것으로 서로 다른 텍스트간에 존재하는 텍스트 간의 상호관계로 정의 될 수 있다.⁵⁷⁾⁵⁸⁾

복식에 있어 텍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의복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기호학의 대상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패션이 독자적인 기호 체계로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게 됨에 따라 패션 텍스트 자체를 인용하거나 특정한 표현방식을 근거로 삼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즉 패션에서의 텍스트란 작가는 스타일, 이미지, 아이템, 소재 등을 의미한다.⁵⁹⁾

해체주의 개념의 상호 텍스트성은 두 가지 이상의 패션텍스트를 인용하는 양식의 표현으로 혼성 모드와 양식의 혼재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1) 믹싱모드

포스트 모던 시대 동안 시각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들 중 하나는 드레스 코드와 스타일의 분해와 재조립이다.⁶⁰⁾ 과거에 고정되어진 어울리는 옷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의 감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혼합 등,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상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치된 토탈 코디네이션의 조화를 거부하며 최대한의 자유와 융통성을 시도한다.⁶¹⁾⁶²⁾

이러한 믹싱 모드는 속옷의 겹옷화,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 스포티 아이템, 캐주얼과 드레시한 아이템의 혼합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아이템의 혼재 방식과, 착상순서의 파괴, 목적이 다른 상반된 복종을 병행이용하드와 소프트,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 또는 전통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등의 상반된 소재와 문양의 결합되는 이질적인 소재 또는 문양의 혼합 등의 디자인적 특성을 지닌 표현으로 나타났다.

2) 스타일의 혼재

스타일의 다원성은 현대 사회에 융해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의 상호 텍스트성을 나타내고 있다.⁶³⁾ 1980년대 이후의 패션경향은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단순히 과거의 모방보다는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 혼성시켜 역사성을 뒤집고 현대에 맞도록 마음대로 차용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미의 복고성이 아니라 비역사적 혼성모방, 오리지널에 대한 전복적 패러디라 할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해 그 부분적 요소를 임의로 조립하고 절충하여 과거와 현재의 매혹적인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패러디적인 패션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성모

방은 비단 역사적 요소의 것뿐만 아니라 민속적 요소, 복고적 요소, 스타일과 이미지의 다양한 혼재,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식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조금 넓은 의미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식에 양식이 혼재된 양식으로 표현된 해체주의 개념은 서로 다른 스타일이나 이미지, 또는 아이디어 소스 등을 혼성 모방하여 잡종성을 제시하는 디자인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성모방의 표현기법은 민속풍의 요소나 복고풍의 요소를 아이디어 소스로 사용하여 새롭게 재해석 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스타일, 이미지 등을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나 방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의 방법

본 연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자료의 선정기준 및 범위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적 해체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자료는 www.firstview.com에 나타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사진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첫째, 이 사이트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패션컬렉션 사이트이며 둘째, 세계의 유명 패션디자이너들이 발표한 작품의 사진들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고 셋째, 패션사진의 색상과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사진의 선명도가 다른 패션관련 잡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범위는 2000년 S/S부터 2007년 F/W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컬렉션을 분석자료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2. 분석대상의 선정

분석대상의 선정기준과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사진 2>

2000년 S/S부터 2007년 F/W 기간동안에 발표된 컬렉션 중 www.firstview.com에 나타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사진자료들 중 머리에서 발목까지 디자인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도 제외시키지 않았다.⁶⁴⁾ 컬렉션 사진들 중 동일한 디자인이나 크기와 각도를 달리한 여러 개의 사진의 경우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대상들 중 2004년 S/S 컬렉션의 경우 쇼의 형식에 있어서 춤과 달리기와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고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파트너와 등장하여 의상의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관계로 디자인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아방가르드패션은 내적으로는 낯설음, 불쾌, 충격, 탈장르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불협화, 과도한 치장, 통일성의 부재, 비유기성, 무질서, 우연성과 임의성, 아이러니, 왜곡, 비진지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준에 적절치 않은 <사진 1>과 같은 디자인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사진 2>에서와 같이 장신구가 전체적인 스타일 파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인 분석자료는 2000년 S/S부터 2007년 F/W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컬렉션들 중에서 총 617개의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III. 연구의 절차 및 자료 분석

1. 분석유목 설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유목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파악된 아방가르드적 해체주의 복식의 특성인 불확정성, 탈중심성, 상호텍스트성의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이러한 세 유형들이 어떻게 복식에 어떠한 양식과 표현 기법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불확정성은 비구조와 비구성, 레이어링, 오비 또는 직선재단 등으로 주로 표현되었고, 탈중심적 해체복식은 성의 교차, 제 3 세계 복식, 하위문화, 초인간주의 표현으로 주로 표현되었으며, 상호텍스트적 해체복식은 아이템의 혼재, 소재와 문양의 혼재, 양식의 혼재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분석유목이 분석대상에 적절하게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이어링 및 오비 또는 직선재단은 그 표현기법에 있어 의복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점에서는 비구성적인 의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유목들은 비구성적인 의복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불확정성은 비구성적인 의복과 비구성적인 의복의 두 가지 유목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탈중심성의 성의 교차의복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밀리터리와 댄디 이미지의 매니쉬표현과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섹스리스의 듀얼리즘 표현 두 가지로 하위변인이 설정되었으며 하위문화 즉, 안티 패션의복에서는 키치 표현과 추의 미(美)표현 두 가지로 하위변인이 설정되었고 초인간주의 의복에서는 미래표현과 제4의 성표현 두 가지로 하위변인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 유목의 하위변인인 아이템의 혼재와 소재 및 문양 혼재표현은 믹싱 모드로 종합하여 하나의 유목으로 설정되었으며,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유형의 의복들은 서로 다른 스타일, 이미지, 아이디어 소스 등을 혼성모방하여 잡종성을 제시한 혼성모방 유목으로 설정되었다.

2.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분석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가지 유형의 분석유목을 중심으로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1차 분류 과정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의상전공자 3인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1차 분류에 참여한 분석자들은 해체주의 복식에 나타난 8가지 특성과 그에 따른 용어정의 및 복식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례가 제시된 자료와 분석할 사진자료 617개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디자인의 유형을 파악하여 해당항목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1차 분류의 분석결과, 분석자간의 일치도가 낮은 디자인의 경우는 2차 분류를 시도하였다. 2차 분류는 1차 분류에 참가하지 않은 2인의 의상전공자들로 구성된 분석자들이 분석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1, 2차 분류가 종료된 후에 분석자간의 일치도가 극히 낮은 디자인 1개의 사진이 추가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616점의 사진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자들간의 일치도는 비구성적인 의복의 경우는 98.2%, 비구성적인 의복은 96%, 성의 교차, 제3세계, 안티패션, 초인간주의 의복은 100%, 믹싱모드도 98% 그리고 양식의 혼재 의복유형은 97.5%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자료분석은 유목별 발생빈도와 각 유목에 속하는 디자인들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후,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VI. 연구의 결과 및 분석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의 유목별 빈도를 나타내 보면 <표 1>과 같다.

1. 발생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알렉산더 맥퀸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 성향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해체주의 개념별 특성을

<표 1>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의 유목별 빈도

해체주의 개념	복식의 표현양식	표현양식의 특성	복식에 표현된 표현기법 사례	빈도 및 빈도율		
				빈도	빈도율	합계
불확정성:무형식	비구조적	디자인 원리의 파괴	의복의 부분적 확대나 길이 연장	78(40.84%)	100% 191 (75.79%)	252 (40.91%)
			스커트 핏라인의 비대칭 · 불규칙 또는 확장	35(18.83%)		
			과잉장식 및 이질적 오브제의 부착	36(18.85%)		
	비구성적	의복 기본형태를 벗어남	의복의 전체적 확대,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여밈 또는 네크라인, 2중 또는 3중의 허리선 등	42(21.99%)		
			여밈 처리의 부재 및 평면의 전을 인체에 두르거나 매거나 걸쳐서 착용	23(37.70%)		
			구성선에 관계없이 동글게 도려내거나 의복의 부분삭제	22(36.07%)		
소매가 없거나 소매의 기능을 슬릿으로 대신, 의복이 완성되지 않고 조각조각 연결, 기본 구성선에서 벗어난 특이한 구성선 등	16(26.23%)					
탈중심성:인종·문화·인간주의 해체	성의 교차	매니쉬 · 듀얼리즘	매니쉬: 댄디, 밀리터리 이미지 등	8(14.29%)	100% 30 (53.57%)	56 (9.09%)
			듀얼리즘: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섹스리스	22(39.29%)		
	제3 세계	민속복식	이국, 오리엔탈, 원시, 자연, 토속적 표현 등	0(0%)	0 (0%)	
	안티 패션	추의 미(美)	키치 표현, 옷감에 인위적인 손상과 파괴	8(0%)	8 (14.29%)	
	초인간주의	미래	미래지향적 이미지: 스페이스, 테크놀러지 등	6(10.71%)	100% 18 (32.14%)	
			제4의 성	새로운 개념의 초인간 이미지		
상호텍스트성: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 인용	믹싱 모드	이질적 소재 · 문양 표현	아이템 혼재표현 착장순서 파괴 및 목적이 다른 복종을 혼용	20(6.49%)	100% 54 (17.53%)	308 (50.0%)
			서로 상반되고 이질적인 소재 및 문양의 혼용	34(11.04%)		
	양식의 혼재	복고 아이디어 소스 혼합	민속풍의 요소를 아이디어소스로	108 (35.07%)	100% 254 (82.47%)	
			복고풍의 요소를 아이디어소스로	56 (18.18%)		
			그 외 서로 다른 스타일, 이미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	90 (29.22%)		
			복합적 혼성 모방 표현			
합계					616 (100%)	

중심으로 살펴보면,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에는 두 가지이상의 패션텍스트를 인용한 상호텍스트적 성향이 308개(50.0%)로 가장 두드러지고 다음으로 의복디자인에 있어 잠재적인 형태인 무형식의 불확정적 성향이 252개(40.91%),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중심에 있었던 성·인종·문화·인간주의 등을 해체시키는 탈중심적 성향이 56개(9.09%)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복식에 표현된 8가지 유형은 양식의 혼재 표현이 254개(41.2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비구조적 표현의복이 191개(31.01%)로 상당부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비구성적 표현의복이 61개(9.9%), 그 다음은 믹싱 모드가 54개(8.771%),

성의 교차 표현 의복이 30개(4.87%), 초인간주의 표현의복 18개(2.92%), 안티 패션 8개(1.30%)의 순으로 보이고 있고, 제3세계 표현의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알렉산더 맥퀸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유목별 발생빈도와 복식에 표현된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가 혼재된 상호텍스트적 해체주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은 양식이 혼재된 형태로 복식에 표현된 양상으로 주로 표현되고 있으며 믹싱 모드로의 표현은 양식의 혼재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불확정한 해체주의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의복의 무형식한 형태로 표현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의 원리가 파괴된 비구조적 양상이 의복의 기본 형태나 기존의 착장관념을 무시하거나 파괴한 비구형적 표현양식보다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인종·문화와 인간위주의 관념을 파괴한 양식으로 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탈중심적 해체주의 특성은 알렉산더 맥퀸의 아방가르드적 특성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성의 교차나 초인간 주의적인 복식의 표현양식을 통하여 나타나고 제 3세계 복식의 양식이나 안티 패션의 양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아방가르드 성향의 특성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아방가르드 성향의 특성을 <표 1>의 결과와 컬렉션에 나타난 유목별 디자인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두 가지 이상의 패션텍스트를 인용하는 상호 텍스트적 성향

패션에 있어 상호텍스트성이란 이전에 존재해 있던 패션텍스트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하여 텍스트간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맥퀸은 민속풍, 복고풍의 요소란 텍스트를 아이디어 소스로 사용함에 있어 그대로의 모방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 이미지들과 혼합, 변형을 하여 다양하게 패러디함으로써 양식의 혼재를 통한 혼성모방 표현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양식의 혼재 성향은 제 3세계의 이국·원시·토속적 이미지의 민속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현대패션의 다양한 양식들과 혼합한 디자인들로 2000년 S/S 컬렉션에서는 소수민족의 민속복과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문화 요소들을 디자인에 많이 차용하여 원색적인 컬러의 대비와 동양적인 문양, 인도풍의 베일을 드리워 사리를 연상시키는 드레스와 하렘 스커트, 넓은 소매와 금속 악세사리로 에스닉룩을

최대한 연출하였다. 또한 2003년 F/W 컬렉션에서도 일본의 극지방 또는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민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테마로 기모노의 변형, 면 누비 코트와 같은 아이템들을 많이 선보이며 극동 아시아의 거친 이미지를 재해석하였다. 그는 민속풍의 요소 특히, 일본, 중국, 몽고 등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리는 민족들의 문양이나 색채 또는 민속복식의 부분적 요소들을 주로 사용하되 어느 특정한 민족의 한 가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와 스타일이 겹쳐지는 잡종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 3>

고대부터 근대까지 유럽복식의 역사적 양식들에서 텍스트를 빌려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 듯한 복합적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한 의상들도 많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S/S와 2004년 F/W 컬렉션에서는 유럽복식의 역사적 양식 특히, 이집트, 그리스, 중세 복식 등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와 혼합하여 과거 복식을 새롭게 재해석하였다.<사진 4>

이렇게 패러디된 양식의 혼재 의복들은 남성,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이미지나 아직 덜 성숙한 소년, 소녀의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복고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의복의 형태는 비구조, 비구형, 이질적 소재의 사용 등과 같은 표현기법을 추구하며 민속적, 복고적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패러디)하였다. 즉, 원 텍스트의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정상적인 지각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의복을 창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스타일, 이미지, 아이디어 소스 등 다양한 양식들이 서로 혼성모방되고 잡종된 새로운 디자인의 제시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선보여지고 있었다.<사진 5>

이와 같이 알렉산더 맥퀸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들의 혼재는 그의 디자인에 있어 복고적이거나 민속적인 요소들이 그의 아이디어 발상의 한 소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면서도 그 표현형태이나 형식 또는 소재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상디자인 방법을 전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모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퀸 자신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혼성모방 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믹싱모드는 양식의 혼재처럼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성향은 아니나 <사진 6> 에서처럼 의상 아이템의 혼재나 <사진 7>에서처럼 이질적 소재 또는 문양의 극단적 대비효과를 보이는 표현기법으로 많이 나타나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소재 선택은 주변의 모든 것이 의상 소재로의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 다양한 소재의 물적 특성의 대비효과를 주로 사용하여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 금속, 몰딩된 토루소, 플라스틱 등의 딱딱하고 광택이 있는 소재에 레이스나 얇은 망사와 같은 매우 부드러운 소재를 함께 사용한다거나 타페타, 얇고 가벼운 울, 비닐, 가죽, 아나콘다 가죽, 에나멜 인조가죽, 호피가죽, 인조 깃털, 벨벳, 벨로아, 두꺼운 울, 저지 등 서로 재질적으로 대비되는 소재를 매치시키기도 하였다.

2) 무형식의 불확정적 성향

맥퀸의 디자인에 반영된 불확정적 성향은 의복을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착용자의 착장방식이나 연출방법, 움직임 등에 의하여 형태가 정하여지는 의복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었다. 형태는 특히 비구조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많은 디자인에서 정상적인 디자인 원리인 균형, 비례, 강조, 리듬이 잘 조화된 디자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디자인원리를 파괴하는 과장된 부분적 확대 또는 과장기법, 길이 연장, 과잉장식 등을 통해 이로 인한 극단인 비대칭에서 오는 충격효과를 즐겨 사용하고 있었다.

의복의 부분적 확대나 길이연장 표현 등으로 의복의 조화를 파괴하는 방식은 가장 자주 나타난 표현 기법으로, 예를 들면, 어깨나 얼굴을 파문고 가릴 정도의 크기로 확대된 칼라나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길게 늘어진 칼라, 한쪽어깨만을 강조한 소매나 기형적인 확대나 과장된 소매, 그리고 의복의 한쪽 옷자락 또는 한쪽 소매부분 등 의복 각 부분들의 길이 연장 등이다.<사진 8> 또한 스커트 햄라인의 변형도 자주 나타났는데 극단적인 비대칭의 스커트 선으

로 인한 리듬감이나 특이한 구조로 형태를 변형하는 등 구조적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사진 9>

의상과 관계없는 이질적인 오브제의 부착도 몇몇 디자인에 보이고 있었는데 의복의 착장 모습이 매우 기이하여 의외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강조된 어깨와 네크라인, 깃털과 러플장식으로 부풀린 형태의 원피스, 레그 오브 머튼소매의 블라우스, 솜처럼 부풀려 목과 어깨를 누르고 있는 니트 등 이렇게 소매 또는 칼라 부분을 매우 크게 확대시키는 기법 등의 사용으로 그 부분의 기능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레이스, 러플, 루프다발 등 의복에서 장식적인 요소로 쓰인 부분들의 부피를 과도하게 확대 또는 중첩하여 과잉장식 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장식적 요소에 있어 그는 의복에 적용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질적인 오브제, 예를 들어 박제된 새의 모형, 장미모양의 다발장식, 퍼즐, 등 의복과 관계없는 기이한 오브제들을 의복에 부착하는데 그 오브제의 사이즈에 있어서도 크게 확대, 확장시켜 전체적 의복 조화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사진 10>

복식의 비구성적 표현양식은 기본적인 의복 구성선이 없이 평면의 천을 두르거나 걸치고 묶는 형태, 상의 부분에 한쪽 소매만 있다거나 인체의 곡선을 무시한 평면적 재단의 구성에 여밈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한쪽에 묶거나 고정시키기도 하는 등의 표현 많이 나타났다.<사진 11> 또한 의복의 기본적 구성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복의 일부를 잘라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양쪽 어깨, 옆구리, 골반부분 등을 드러내어 의외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며 의상을 형태의 일부만 남긴다거나 부분삭제 시키는 등의 비구성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소매가 없이 손의 사용을 위한 슬릿만을 준 박스형의 형태 등 상식적인 의복 형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사진 12>

3) 탈중심적 성향

맥퀸의 디자인에서 탈중심적 해체주의 성향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자주 나타난

표현기법은 성의 교차적 표현이다. 맥퀸은 여성들이 여성스러운 모습 보다는 남성적 매력을 함께 지니고 있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자주 선보이고 있었다. 테일러드 자켓과 셔츠, 타이, 남성적 견장 장식, 군복의 요소 등을 사용하여 댄디하거나 밀리터리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혼합한 듀얼리즘적인 의복 스타일나 남성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일러드 칼라나 셔츠, 타이 등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여성복에서 볼 수 있는 러플장식, 레이스장식, 플리츠 또는 타이트스커트 등과 함께 매치시켜 양성적인 표현을 하였다.<사진 13>

더불어 알렉산더 맥퀸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간의 성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성을 의상디자인으로 창조하였는데 주로 광택이 있는 비닐소재, 금속소재, 새의 깃털, 가죽,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새, 파충류, 사이보그 등 동물 또는 기계를 인간과 결합한 새로운 성, 즉 제 4의 성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초인간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성의 이분법적 형식을 벗어나 다소 기괴한 표현방식으로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알렉산더 맥퀸만의 아방가르드한 성향으로 보인다.<사진 14>

이외에도 알렉산더 맥퀸은 미적 통념을 깬으로서 의외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추의 미 디자인과 우주, 스페이스 이미지의 미래적 의상디자인도 몇몇 선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아방가르드적 성향을 고찰하기 위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는 상호텍스트적 성향의 아방가르드 특성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복식의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보면 양식의 혼재 82.47%로 나타난 반면 믹스모드는 17.53%로 나타나 단연 양식의 혼재 성향이 두드러져 있다. 이러

한 양식의 혼재가 복식에 표현된 특성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소스를 제3세계 문화적 요소, 즉 민속풍 텍스트로부터 가져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들과 혼합 또는 조합하여 다양하게 변형, 패러디함으로써 양식의 혼재를 통한 혼성모방 표현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인 패션 텍스트를 단순히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출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양식들과의 혼합을 통하여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제시한 패션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에 따른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혼용하거나 서로 상반되고 이질적인 소재와 문양의 혼재를 통한 믹스모드는 양식의 혼재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양식의 혼재를 통해 나타난 디자인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인 소재의 배합에 의한 강렬한 충격을 더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대비효과를 노리며 그의 디자인의 창의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음으로 양식의 혼재와 믹스모드로 이분화된 표현양식은 많은 디자인에서 어떤 성향이 더 두드러져 있는가에 차이는 있으나 서로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게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불확정적 성향은 40%가 넘는 빈도율을 보이는 매우 두드러진 아방가르드적 특성의 하나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의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기본적 디자인 원리의 조화를 파괴하는 비구조적인 표현기법이 76% 정도로 나타나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표현기법의 디자인상의 특성은 과도한 과장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인한 파괴적이며 비상식적인 기발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의복 형태와 구성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성방식으로 인체에 천을 둘러주거나 과감한 디자인의 필수적 구성부분의 삭제 또는 특이한 구성선 사용 등의 비구성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모습의 의상디자인 형태를 선보여 의복을 하나의 표현예술로 표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탈중심적 성향은 10%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의 디자인에 주요한 특성을 이루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다. 주로 매니쉬하거나 듀얼리즘적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디자인의

특성은 강한 남성성을 지닌 매니쉬한 성향이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중요시되지 않는 성의 교차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을 연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제 4의 성 표현을 의상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별되

는 알렉산더 맥퀸만의 아방가르드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맥퀸의 아방가르드한 해체주의적 특성은 그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감정적인 힘과 원시적 에너지와 더불어 맥퀸 디자인의 주요한 특성인 대조적 요소를 - 즉 강인함과 연약함, 전통과 현대성, 엄격



<사진 3> 2000 S/S



<사진 4> 2003 S/S



<사진 5> 2006 F/W



<사진 6> 2003 S/S



<사진 7> 2003 F/W



<사진 8> 2002 S/S



<사진 9> 2007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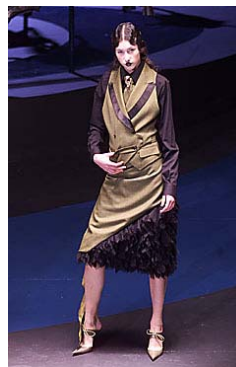
<사진 10> 2002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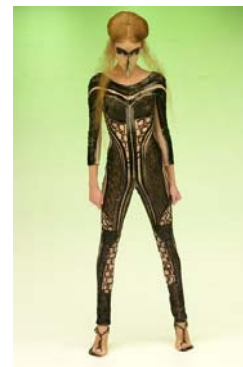
<사진 11> 2002 S/S



<사진 12> 2001 S/S



<사진 13> 2001 F/W



<사진 14> 2003 S/S

함과 융통성- 잘 반영하면서 그의 파격적이고 그로 테스크한 스타일, 때로는 터무니 없기까지한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러한 충격을 그의 기발한 창의력과 기술력으로 정화시켜 줌으로써 패션에 새로운 장르를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낯설음, 불쾌와 충격 그리고 탈장르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은 가장 혁신적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체주의 패션의 디자인 분석과 패션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1
- 2) 송정선 · 박옥미(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현상",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p.67
- 3) 노정심, op.cit., p.72
- 4)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자료검색일 2007.4.12
자료출처:<http://m1r1.egloos.com/464310>
- 5) 김혜정(2000). "해체주의 패션에 보여진 외형적 양식의 특성 연구". *디자인학연구*, 13(3) p.272.
- 6) Fashion Eras, 1800-2000. 자료검색일 2005. 6. 11, 자료출처 http://www.fashion-era.com/fashion_eras.htm
- 7) Tokyo Fashion. 자료검색일 2005. 6. 11, 자료출처 http://ikjeld.com/features/fashion/frame_stub.html
- 8) Fashion 자료검색일 2007. 9. 25 출처: http://encarta.msn.com/encyclopedia_761585452_4/Fashion.html
- 9) 영혜정(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2), pp.71-83
- 10) 문행숙(1998). "장 폴 고티에의 패션세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은영자 · 김선혜(2002).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28
- 12) 최은진(2002), "장 폴 고티에의 작품이 현대 패션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영혜정, op.cit., pp.71-83
- 14) 월간미술(편)(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341
- 15) 월스린 타타르키비츠(1998), *예술개념의 역사*, 김채현(역), 열화당, p.81
- 16) 아드리안 마리노(1984), *아방가르드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외국문학, p.48
- 17) 피터 뷔르거,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최성만 역, 심설당, 1986, pp.209-210
- 18) 성완경(1984), *아방가르드의 딜레마*, 외국문학, , p.222
- 19) 성완경 Ibid., p.222
- 20) 정원일(1997), "아방가르드 담론에 관한 연구 - 포스트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9, p.277
- 21) 장미숙 · 양숙희(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3), p.416
- 22) 정원일, op.cit., p. 277
- 23) Caroline Evans & Minna Tornton(1989), *Women & Fashion*, New York: Quartet Book, pp.59-60
- 24)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 예술적 진품성과 유일무이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소유권이나 재산권 등도 함께 검증한다. 즉 패러디를 통해 흔히 회귀하고 유일하며 값어치 있다고 여겨지는 오리지널을 의문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러디가 불가피하게 새롭고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패러디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정원일, op.cit., p.277

- 25) 진취연(2002),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민음사, p.15
- 26) 경한주(1996).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김민자(1998)."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1". *복식*, 37(3), PP.103-118.
- 28)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2. *복식*, 38(2), PP.369-392.
- 29) 김아진·도규희(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PP.1623-1632.
- 30) 김주영(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4.
- 32)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8(1),PP.107-121.
- 33) 김혜정, op.cit., PP.271-280.
- 34) 노정심, op.cit.,
- 35) 권혜숙(2007).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모드와 특성". *패션비즈니스*, 11(5),pp.110-123.
- 36) Xinxian Zhuo(2004). "Locke on Language", *US-China Foreign Language*, 2(4- serial No7), 자료검색일 2007.10.15. , 자료출처 <http://www.linguist.org.cn/doc/uc200404/uc20040402.doc>
- 37) 조말희(1996),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1
- 38)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p.14
- 39) 김아진 · 도규희 op.cit., p.1628
- 40) 김아진 · 도규희, *ibid.*, p.1626
- 41) 권혜숙, op.cit.,p.116.
- 42) Boje,David M.(2001). "Jacques Derrida", 자료 검색일 2007. 9. 27, 자료출처 http://business.nmsu.edu/~dboje/teaching/503/derrida_links.html
- 43) Deconstruction(2007), Wikipedia, 자료검색일 2007 11. 5,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econstruction>
- 44) 김형효(1997).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p.16
- 45) 권혜숙, op.cit. p.115
- 46) Kawamura,Yuniwa, op.cit.,
- 47) Siddiqui, Reema. " From Catwalk to Sidewalk - Postmodern Fashion", 자료검색일 2007 10 . 11 자료출처, gcu.edu.pk/RaviPDF/From%20Catwalk%20to%20Sidewalk%20-%20Postmodern%20Fashion.pdf
- 48) 이영재, op.cit., p.113
- 49) 정은주(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 50) 임주영(1995). "현대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6
- 51) McAdam, Anita. *Fashion as identity in action: Skaters, Casuals, B-Boys and Fly-Girls*, 자료검색일 2007,10.11, 자료출처 <http://www.aber.ac.uk/~jmcwww/ldentact/Papers/paper23.doc>.
- 52) Stoykov, Lubomir(2006). "Fashion and sub culture", 자료검색일 2007.10. 11, 자료출처 http://www.bgfashion.net/news/fashion_and_subculture.php
- 53) 정혜경 · 박연희(2001). *패션의 이해*, 경남대학교출판부, pp.176-177
- 54) 김아진 · 도규희, op.cit.,p.7
- 55) Posthumanis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자료검색일 2007. 9. 5,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osthumanism>
- 56) 임수정(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2
- 57) Irwin, William(2004). "Against Intertextuality". *Philosophy and Literature*, 28(2), pp. 227-242. 자료검색일 2007, 9. 5,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ntertextuality>
- 58) Intertextuality, Dictionary, MSN Encarta, 자료 검색일 2007 10.17, 자료출처 <http://encarta.msn.com>

- com/dictionary_1861739562/intertextuality.html
- 59) 진경옥(2001),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이너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2
- 60) "Costly Compensations: Postmodern Fashion, Politics, Identity". 자료검색일 2007.9.5, 자료출처 <http://faculty-staff.ou.edu/L/Vincent.B.Leitch-1/article3.html>
- 61) 정은주, Op.cit., p.44
- 62)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p.501
- 63) McAdam, Anita. Fashion as identity in action: Skaters, Casuals, B-Boys and Fly-Girls, 자료 검색일. 2007. 10.11, 자료출처; <http://www.aber.ac.uk/~jmcwww/Identact/Papers/paper23.doc>.
- 64) Alexander McQue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2000 SS/AW, 2001 SS/AW, 2002 SS/AW, 2003 SS/AW, 2004 AW. 2005 SS/AW, 2006 SS/AW, 2007SS/AW. 자료검색일 2003.12.17, 2004.5.11. 2008 2.4. 자료출처 www.firstview.com/collection.php?p

접수일(2007년 11 월 26일),
수정일(1차 : 2008년 1월 15일, 2차 : 2월 13일),
게재확정일(2008년 2월 18일)